

보도	2023.7.17.(월) 조간	배포	2023.7.14.(금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은행검사1국 상시감시팀	책임자	팀 장	황준하	(02-3145-7065)
		담당자	수 석	이연주	(02-3145-7066)

「은행(지주) 지배구조 best practice 마련을 위한 T/F」 출범

- 주요 내용 -

- 금감원과 은행권은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(best practice) 마련 등을 위해 공동 T/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 실시
 - 동 T/F에서는 주요 지배구조 이슈별로 국제기준, 해외사례, 국내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best practice를 마련할 예정
- 한편, 금감원은 금년 업무계획으로 발표한 ‘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’ 방안의 일환으로 금일(7.14) 16개 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음

1. 개요

- 금감원은 ‘은행지주·은행(이하 “은행”) 지배구조’를 ‘23~’24년 은행부문 핵심 감독·검사 테마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.
 - 주요 내용은 ①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, ②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 마련·확산 유도, ③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강화입니다.

※ '23.4.4(화), 「은행부문 주요 감독·검사 현안」 기자설명회 보도자료 참조

- ① **(이사회 소통 정례화)**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간 소통을 정례화(은행별 최소 연 1회)하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를 유도
- ② **(best practice)**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와 은행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를 마련하고 이의 확산을 유도
- ③ **(지배구조 검사 강화)** 은행에 대한 상시감시(off-site) 및 현장검사(on-site)시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여 종합적으로 진단·평가

2. 그간의 추진경과

①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간의 소통 정례화

- (추진배경) 은행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확립되어야 하며,
 - 이를 위해서는 은행 지배구조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이사회와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※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이사회 권한(법 제15조 제1항)

- ① 경영목표 및 평가, ② 정관 변경, ③ 예산 및 결산, ④ 해산·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, ⑤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제정·개정 및 폐지, ⑥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, ⑦ 대주주 임원 등과 회사간 이해상충 감독

- 이에 금감원은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*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금감원과 이사회간 소통을 정례화(은행별 최소 연 1회 실시) 하였습니다.

※ '23.2.23(목), 「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 해외사례」 보도자료 참조

- (추진경과) 그간 연간계획에 따라 상반기중 총 9개 은행(3개 은행지주, 6개 은행) 이사회와 정례 간담회를 실시*하였습니다.

* (지주) KB금융(4.27), NH금융(4.28), 신한금융(6.28),
(은행) 농협(5.25), 케이(5.31), SC(6.8), 국민(6.16), 기업(6.29), 신한(6.30)

- 이와 함께 금일(7.14) '고위급 회담*'의 일환으로 이준수 금감원 은행·중소서민 담당 부원장 주관 下에 16개 은행의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,

※ 전체 은행(지주)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 의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
(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의 간담회는 금감원장 주관으로 하반기중 실시 예정)

- 금일 간담회에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, 은행권 잠재 리스크요인, 손실흡수능력 확충 방안, 내부통제 강화 등 은행권 전반의 당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.

[16개 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 개요]

- ☑ (일시) '23.7.14.(금) 11:40 ~ 13:20 (오찬 간담회)
- ☑ (장소)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
- ☑ 참석자 : (금감원) 이준수 부원장, 은행검사1국장
(은행권)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SC, 씨티, 대구, 부산, 경남, 전북, 광주, 제주, 카카오, 토스, 케이 등

②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감시(off-site) 및 현장검사(on-site) 강화

- 지난 상반기중 실시한 은행지주·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시 지배구조의 적정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운영하였으며,
 -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은행별 지배구조 관련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할 예정입니다.

③ 지배구조 best practice 마련 및 확산 유도

- (추진배경) 현재 국내의 경우 '16년 시행된 지배구조법 외에 개별 은행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모범관행(best practice)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

※ 금감원이 각 은행 이사회와 면담시에도 은행 사외이사들은 현행 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기준 등이 기본원칙 위주로만 기술되어 있어 은행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best practice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

- 감독·검사 측면에서도 해외 감독당국들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*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감독에 활용하고 있으나, 국내의 경우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.

※ 주요국의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 가이드라인 사례

- 美 통화감독청(OCC) : Director's Book, Role of Directors for National Banks('20.11)
- 유럽 은행감독당국(EBA) : Guidelines on internal governance('21.7)
- 英 건전성감독당국(PRA) : Supervisory Statement on Corporate governance: Board responsibilities('18.7)
- 캐나다 금융감독청(OSFI) : Guideline on Corporate governance ('18.9)
- 싱가포르 감독청(MAS) :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('21.11)
- 호주 건전성감독청(APRA) : Guide for directors('22.11) 등

⇒ 이에 은행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를 마련해 업계 자율 모범규준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

- (추진경과) 그간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국제기준, 글로벌 금융회사 사례, 국내은행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·분석해왔으며,
 - 금감원이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은행권 T/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를 마련할 계획입니다.

3. 「지배구조 best practice 마련을 위한 T/F」 운영

- (TF 구성) 금감원 은행·중소서민 담당 부원장,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 담당 임원, 금융연구원, 한국ESG기준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.

※ 운영 효율성을 위해 금감원, 은행권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별도 실무작업반 운영

[T/F 구성 내용]

- ☑ (금감원) 이준수 부원장, 은행검사1국장 등
- ☑ (은행권) 은행연합회, 8개 지주, 5개 은행* 지배구조 담당 임원 등
* 시중(국민, 신한), 특수(농협), 지방(대구, 전북)
- ☑ (연구기관) 금융연구원(권흥진 박사), 한국ESG기준원(김형석 박사)
- ☑ (kick-off 미팅) 2023.7.14.(금) 오후 3시, 은행연합회 회의실

- (향후 일정) T/F에서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,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, 사외이사 지원체계 등 주요 지배구조 이슈를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,
 - 금일(7.14) T/F 킥오프 미팅을 실시하였으며, T/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중 T/F 최종안을 확정·발표할 계획입니다.

[주요 T/F 논의과제]

- ① (사외이사 지원체계)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외이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조직 및 체계 정비
- ② (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) 공정하고 투명한 CEO 선임 및 승계절차 마련을 위해 CEO 자격요건, 후보군 관리, 후보군 검증방식, 승계절차 개시시점 등에 대한 모범관행(best practice) 마련
- ③ (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적합성 확보)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·전문성 등 집합적 적합성 (collective suitability) 확보 방안 및 독립성 제고 방안 마련
- ④ (사외이사 평가체계)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결과 활용방안 마련
- ⑤ (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) 고위 경영진 책무구조도, 내부통제 관리의무 “상당한 주의” 판단시 고려사항 등 내부통제 관리체계

4.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·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은행 지배구조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.
- 이를 위해 금번 T/F에서 은행권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**best practice**를 마련해 이의 확산을 유도하고,
 - 금년부터 정례화한 이사회와의 간담회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어 은행 이사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아울러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배구조 관련 취약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지도해나갈 예정입니다.

※ [별첨]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「T/F 킥오프 미팅」 모두발언 1부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<http://www.fss.or.kr>)